

선어록 해제 36 한국선과 선어록 7

종문원상집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56>

중생제도 해도 한 바 없으니 보살

어떤 서생이 떠나려고 인사를 했다.
“제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화상께 폐를 끼쳐드렸습니단만 은혜를 갚을 길이 없습니다. 훗날 한 마리의 당나귀가 되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노승으로 하여금 어찌 말안장을 얻게 하는가?”

有秀才辭去云 某甲在此括燒和尚多時 無可報答和尚 待他日作一頭驢來報答和尚
師云 教老僧爭得數

한 때 어떤 선비가 여러 날을 조주 선사의 절에서 묵었다가 조주 선사에게 하직 인사를 올렸다. 그동안 선적인 생활과 설법을 들었던 터라 선적 비유를 들어 인사를 올렸다. 훗날 한 마리의 당나귀가 되어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말한 것은 언젠가 조주 선사를 위한 노복이 되어 은혜에 보답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주 스님은 그런 은혜에 대한 보답을 절대 바라지 않았다. “날더러 말안장을 얹으라는 말인가?” 하고 말한 것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깔고 한 말이다. 승가에서는 승려가 축생의 등에 타는 것은 금기돼 있다. “자네의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말게” 라는 뜻이다. 이것은 나는 보답을 바라지 않으니 은혜 같은 것을 갚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진정한 보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해도 제도한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절대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

조주 스님이 도오(道吾) 스님 처소에 이르렀을 때였다. 조주 스님이 승당에 들어서자마자 도오 스님이 말했다.

“남전의 화살 하나가 왔구나.”
조주 스님이 말했다.
“화살을 보아라.”
도오 스님이 말했다.
“자나가 버렸다.”
조주 스님이 말했다.
“명중한 거야.”

으로 쏘 들어선 것이다.

도오 스님은 조주 스님을 보자, 직감적으로 선문답을 하러 온 것을 알았고, 조주 스님도 주저하지 않고 바로 “화살을 보아라” 하고 선문답을 걸은 것이다. 따라서 도오 스님은 승당 안의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기량을 보여야 하는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도오 스님 역시 선의 안목이 있는 선승이라 즉시 대꾸하는데 막힘이 없다. “스님이 ‘화살을 보아라’ 라고 말했으니, 그 자체가 벌써 다른 데로 빗나가 버린 거요”하고 말한 것이다. ‘화살을 보아라’ 하고 말한 것이 틀렸다는 말인데, 도오 스님은 분명 정확하게 본 것이다. ‘화살을 보아라’ 라는 말은 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도에 대한 안목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말이다. 그러나 천하의 조주 스님은 유연하게 “그게 무슨 말이냐? 명중한 거야. 그대가 나의 말에 대해 응대할 것 자체가 바로 화살을 받아들이는 것이니, 그대의 마음 중앙에 나의 화살이 박힌 것이 아니고 뭐겠어? 나는 이미 그대의 수준을 파악했던 말이야” 하고 말한 것이다.

조주 스님의 순발력이 기막하다. 언뜻 보면 조주 스님의 이 명중이라는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조주 스님의 이 명중을 알아버릴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다. 본 납자에 그것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그 말은 다음과 같다. “둘 다 죽은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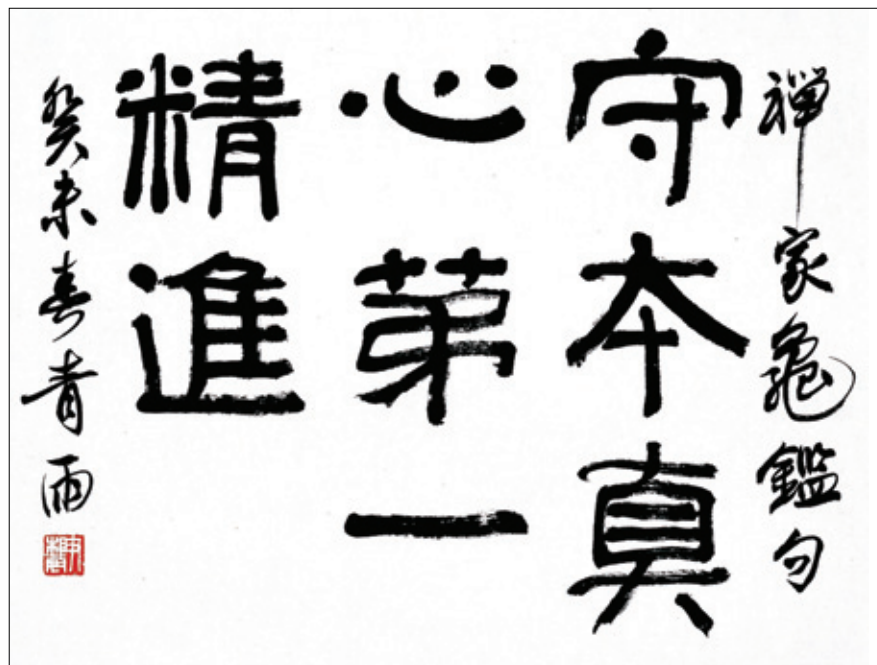
—<조주선사어록>상권 끝
무불선원 선원장

“당나귀 돼 은혜 갚겠다”에 “말안장 얻게 하지 말라” 해

師到道吾處 纒入僧堂 吾云 南泉一隻箭來
師云 看箭
吾云 過也
師云 中也

조주 스님은 60세가 넘어서 스승 남전 스님이 죽자, 비로소 천하를 다니면서 행각했다. 본 <조주록>에서도 나오듯이 조주 스님은 간혹 방문 중인 선사들과 선문답을 나누곤 했다. 이것을 도오 스님이 알고 있었는데, 마침 조주 스님이 승당 안

운상민의 서화산책 ④ 禪家龜鑑句(선가귀감구)



참마음을 지켜라

守本真心第一精進 (수본진심제일정진)
본디 참마음을 지키는것 이것이 으뜸가는 정진이다.

서산 대사가 집필한 불교계론서 <선가귀감>은 참선을 하는 수행자들을 위해 조사들의 어록중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추린 책이다.

<선가귀감>의 구절 중 ‘수본진심 제일정진’은 흥인 대사의 어록인 ‘본래 참마음을 지키다[守本真心]’를 인용한 것으로 “나는 지금 그대들에게 스스로 본심이 바로 부처임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천만 가지 경문의 말씀이 본래 참마음을 지키만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계정심수선
미진제본가
일진귀감구
정우

龜: 거북 귀,
땅이름 구
鑑: 거울 감
眞: 참 진
精: 정할 정



서예가·동아미술상 수상

선어록 기호와 상징 엮은 책

<종문원상집(宗門圓相集)> 1권은 선종에서 전승해온 원상에 대한 기록들을 모은 것이다. 고려 중기 지경(志敬)이 기존의 선어록에서 온갖 부호, 기호, 상징, 도상(圖像)과 관련된 범어를 간략하게 추려서 엮은 것이다. 1219년에 청진몽여가 쓴 발문에 의하면 원상 170칙을 선별해 간략한 범어와 함께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상(圓相)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에 남양혜종 국사로부터 비롯됐는데, 그것은 실로 불조의 명맥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원상이 담고 있는 종지는 매우 그윽하고 대단히 미묘해 분별사식으로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모두 어렵게 하고 막연하게 그 주변만 살짝 맛볼 뿐이다. 하물며 그 깊은 의미를 발양할 수 있겠는가. 때문에 남양과 위상이 노래한 이후로 그것을 전승한 자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이제 왕사로서 화장사의 대선공에게서만 유독 그 원상의 도리를 설명해 선성의 골수를 파헤쳤다. 선적(禪寂)의 경지마저 벗어난 뛰어난 안목을 구비해 모든 가풍의 선록 가운데서 제작된 원상 170칙을 수집해 그것을 판목에 새기고 출간해 무궁하게 전승했다. 이에 우레와 같은 대법고로써 원상의 도리를 널리 펼쳤으니 그 어찌 대법의 발흥이 아니겠는가. 이제 대법의 발흥을 기다릴 뿐이다. 남양과 위상의 두 큰 스님은 모두 국사이시다. 국사께서 원상을 제작하시고 국사께서 그것을 계승시켰으니 가히 희세의 사건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옛적의 작자를 알아준 이가 어찌 화장의 국사의 공로가 아니겠으며, 오늘에까지 그것을 전승시켜준 이가 어찌 남양국사의 공덕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개중에 담겨 있는 도리는 모든 선지식들조차도 그려낼 수가 없구나. 그러니 화장국사께서 섭수해 놓은 무진의 일원상에 대하여 형안을 구비한 납자라면 어디 한번 잘 살펴 분별해 보라.]

원상의 원류(源流)로는 용수 대사가 허공에 올라가 원상(圓相)을 보이고는 그 자취를 감추어버렸다는 <전등록>에서 찾기도 한다. 어느 때 용수가 자리에 앉은 자세로 있으면서 월륜상(月輪相)을 보았다. 그리고 대중한테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다음과 설법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대해 그제자 가나 제바는 ‘이것이야말로 상서로운 일이다. 스승께서는 불성을 드러내고 설법을 하는데 있어 소리와 형색을 초월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승에 대한 원상의 계보는 <조정사원> 권2, <인전안목> 권4, <오가정종찬> 권하 등으로 자료에서는 한결같이 원상을 처음으로 그려보인 것은 남양혜종 국사로부터 비롯됐으며, 그것을 혜종의 제자 탐원이 이었고, 탐원은 양산에게 계

승시켜 위양종의 종풍이 됐다고 전한다. 가령 <조당집> 권3의 혜종국사장에는 “어느 날 승이 오는 것을 보고 국사는 손으로 원상을 그리고는 그 속에 일(日)자를 써 넣었다”고 전한다. 이렇듯이 혜종에게는 원상 96칙이 전승됐지만 그에 대해 일찍이 40칙의 원상을 그려서 전승했다는 명주 오봉산의 양(良) 화상에 의하면 원상에는 모두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의 명칭이 붙어 있다고 말한다.

첫째, 원상(圓相)의 경우에는 절대의 진실 곧 진실 그자체로서 일원상을 가리킨다. 둘째, 의해(義海)의 경우에는 모든 삼매의 뜻은 일원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셋째, 암기(暗機)의 경우에는 주객의 분별이 생겨나기 이전의 작용을 가리킨다. 넷째, 자학(字學 혹은 多字學)의 경우에는 일원상이 불변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라는 것을 가리킨다. 다섯째, 의어(意語)의 경우에는 일원상이 불변의 뜻을 나타내는 종의(宗意)라는 것을 가리킨다. 여섯째, 묵론(?論)의 경우에는 일원상이 불변의 뜻을 나타내는 종의(宗意)에 부합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종문원상집(宗門玄鑑圖)>에 수록돼 전하는 혜종의 96종 원상도는 세분화하면 120종이 되지만 내용으로 간주하면 그것은 모두 19문으로 시설(施設)되어 있다. ①수시삼매문(垂示三昧門) ②문답호환문(問答互喚門) ③성기무작문(性起無作門) ④언기무애문(緣起無碍門) ⑤명기보호문(明機普互門) ⑥매합빈주문(昧合賓主門) ⑦삼생불격문(三生不隔門) ⑧즉명현진문(即幻明眞門) ⑨용료생연문(用了生緣門) ⑩취생현법문(就生顯法門) ⑪명부생연문(冥府生緣門) ⑫삼경순진문(三境順眞門) ⑬수기식생문(隨識生門) ⑭해인수생문(海印收生門) ⑮밀용영기문(密用靈機門) ⑯쇄타동시문(碎啄同時門) ⑰수수수방문(隨隨隨放門) ⑱권시무주문(卷舒無住門) ⑲일다자재문(一多自在門) 그러나 몽어의 말마따나 96종의 원상이 이들 19문의 어디에 해당하는가는 명쾌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안목이 필요한 대목이다.

또한 순지의 원상 18종을 비롯해 다양한 원상이 수록돼 전하는 지경의 <종문원상집>에 보이는 특징은 기관(機關)이 아니라 일종의 상황에 따라 연출되는 제스처라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위양종의 표상현법을 방원목계(方圓默契)라고 말한다. 이런 점에서 선법의 교의에 대해 수행과 교화라는 일정한 주제로 정형화시킨 동산의 편정오위(偏正五位)의 도상과는 차별이 된다.

순지의 원상 18종 등 상황별 원상 수록

정형화된 동산의 편정오위 도상과 달라

원상을 제작하시고 국사께서 그것을 계승시켰으니 가히 희세의 사건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옛적의 작자를 알아준 이가 어찌 화장의 국사의 공로가 아니겠으며, 오늘에까지 그것을 전승시켜준 이가 어찌 남양국사의 공덕이 아니겠는가. 그렇지만 개중에 담겨 있는 도리는 모든 선지식들조차도 그려낼 수가 없구나. 그러니 화장국사께서 섭수해 놓은 무진의 일원상에 대하여 형안을 구비한 납자라면 어디 한번 잘 살펴 분별해 보라.]

원상의 원류(源流)로는 용수 대사가 허공에 올라가 원상(圓相)을 보이고는 그 자취를 감추어버렸다는 <전등록>에서 찾기도 한다. 어느 때 용수가 자리에 앉은 자세로 있으면서 월륜상(月輪相)을 보았다. 그리고 대중한테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다음과 설법을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대해 그제자 가나 제바는 ‘이것이야말로 상서로운 일이다. 스승께서는 불성을 드러내고 설법을 하는데 있어 소리와 형색을 초월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승에 대한 원상의 계보는 <조정사원> 권2, <인전안목> 권4, <오가정종찬> 권하 등으로 자료에서는 한결같이 원상을 처음으로 그려보인 것은 남양혜종 국사로부터 비롯됐으며, 그것을 혜종의 제자 탐원이 이었고, 탐원은 양산에게 계



김호국 동국대 선학과 외래교수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7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첫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향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곡,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30명(선착순) ◆원서접수: 2011년 4월 14일까지
◆개강일시: 2011년 4월 15일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교육과정

(1) 초급과정(3개월)
◆ 조석예불
◆ 사시불공, 삼보통칭, 각단불공
◆ 시달림

(2) 중급과정(3개월)
◆ 바라춤: 요잡(막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사방요신, 도량계
◆ 49제, 천도의식(시련, 대령, 관육)
◆ 사 물: 태징, 북, 요령, 목탁

(3) 연구과정(6개월) - 초, 중급 이수자에 한함
◆ 가지계,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관육바라, 신중작법봉정39위, 육건이, 다계작법, 운심계작법, 범고춤, 패불이운

강 주: 교무국장 성우스님

교육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교육지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불모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다.

교육과정(2년제)

1-1	1-2	2-1	2-2
• 불화기초(I) 시형초 등극기	• 불화기초(II) 보살초 등극기 사천왕초 등극기	• 불화그리기 불화실습(I, II)	
	• 채색 기법		• 불교미술이론 병행

단청기법을 응용한 작품활동도 가능

강 주: 혜경스님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 5시

공통 사항

◆개강일시: 2011년 3월 3일(수시모집가능)
◆수 강 료: 입학금 10만원(교재비포함), 3개월 30만원
◆접수처 및 강의장소: 한국불교태고종 경북총무원(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123-1번지 HD빌딩 2층)
◆제출서류: 수강신청서 1부(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판사진 1매
◆접수기간: 상시모집
◆연 락 처: 054)975-4339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총무원